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Factors for the Elderly Women

이 장 희 (강동대학교 교수 - 주저자)

Abstract

Jang-Hee Le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how physical health status, economic stress, and socio-emotional solitude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that is important factor of aged life of elderly women. This study surveyed elderly woman participating at 16 the senior welfare center in Chungcheongbuk-do and finally 197 cop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s of elderly women may be a sufficient asset for the aged; the more sufficient asset have been shown to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age, educational standards, average monthly income and the married state didn't affect life satisfaction.

Second, next question assume that physical health as a biological point a view, economic stress and socio-emotional solitude as a socio-psychological point a view was very important factor of life satisfaction, and then analyzed effect of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The result was physical health, economic stress and socio-emotional solitude influence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women.

This research may be able to help elderly women prepare for old age, furthermore can be used as a basis to prepare between welfare policy and welfare program development for improving woman seniors' quality of life.

주제어: 여성노인,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 삶의 만족도

Keywords: elderly women, physical health, economic stress, socio-emotional solitude, life satisfaction

* 이 논문은 2013년 교원산업체 연수 논문 임.

I. 머리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숫자의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수와 비율의 증가, 그리고 노인인구 자체의 역동적인 변화야말로 금세기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가장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인해 기대 수명 연장으로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6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6년에 초 고령 사회에 도달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70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한국은 불과 2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고령자 통계 조사에 의하면 현재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 노인인구 중 56.9%가 여성노인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기대수명 조사에서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4.4년을 70세 이상은 3.8년, 80세 이은 2.2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성노인의 수명이 긴데 기인하는 것으로 여성 노인이 홀로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적이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과 순종, 인내로 살아왔으며 경제적 보상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적으로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해왔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주부로 살아온 많은 여성노인이 가족구조의 변화로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가정의 부양기능의 약화와 낮은 교육수준, 건강문제 등 여성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길지만 교육수준이 낮고, 질병이 더 많고, 가난하여 삶의 만족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년기를 오랫동안 보낼 확률이 높은 여성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며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정서적 고독감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년을 앞둔 여성노인들에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 노인의 특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남성노인이 43.1%이며,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6.9%로 조사되었다. 2010년 65세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남자 17.2년보다 여자가 21.6년은 4.4년이, 70세는 남자 13.5년보다 여자가 17.3년으로 3.8년이, 80세 고령자의 기대수명은 남자 7.6년보다 여자가 9.8년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수명이 긴데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혼자 사는 시간이 남성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인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도 건강, 경제상태, 배우자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성생활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특히, 거주형태에서는 노인 독거가구에서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85.6%인 것을 볼 때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대부분이 여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혼자 사는 시간이 남성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독감이나 노인 우울 등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노인 현황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 70.9%가 건강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으며, 동시에 61.3%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여성노인들은 노년기 노후생활에 있어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1) 여성노인의 건강문제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들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질적으로 향상된 삶의 형태에 초점을 맞춰 지고 있다(이상구 외, 2008; 손준호 외, 2010). 즉, 건강한 노인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한 체형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척추의 점진적인 축소현상을 보여 길이 및 높이가 감소하고 둘레는 증가하는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폐경이후 나이가 들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 저하로 인한 골밀도 감소현상이 나타나 골다공

증이 많이 발생한다(한진숙 외, 2010). 또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건강 면에서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고 남성노인보다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미령, 2006).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환자는 68.3로 나타났으며 3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44.3%로 나타났다. 이중 여성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은 93.7%이며, 복합이환율도 77.6%로 남성노인의 56.1%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다. 여성노인의 만성질환 중 고혈압이 59.6%로 가장 높았고, 관절염 55.5%로 남성노인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노인 본인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평가에서 51.5%가 건강상태의 만족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건강문제가 큰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성노인의 경제적 문제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OECD 회원국의 빈곤율 평균 15.2%에 비해 32%p 높은 47.2%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OECD 회원국 중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낮은 뉴질랜드는 0.9%이며, 체코 2.9%, 아이슬란드 4.3%, 룩셈부르크 2.4%, 네덜란드 2.4%로 대부분 여성노인 빈곤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여성의 연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2,168천원으로 남성의 64.4% 수준으로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의 연금수급액은 낮고 여성 빈곤율은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실제로 2012년 고령자 통계 보도 자료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고령자는 21.8%로 남성고령자의 40.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의 생활비 부분에서도 남자노인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6.7%에 비해 여성노인은 자녀 또는 친척지원이 4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여성노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여성노인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자신의 경제적인 의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높은 평균 수명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독거노인 가구가 많아 우울감이나 고독감에 노출되기 쉽다. 여성노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세대를 살아오면서 남성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삶의 질에 대한 만족이 남성 노인에 비하여 떨어진다. 그러므로 여성노인들의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성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와 실질적으로 노인 가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3) 여성노인의 여가문제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생계와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헌신한 세대로서 여가에 대한 예비사회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가시간이 주어져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써 노인은 고독, 소외, 만성적 무료함, 더 나아가 인생에 대한 불행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직장동료관계, 가족관계, 등 위축된 사회관계망을 보완·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고독과 소외감에서 경감할 수 있다(권중돈, 2004). 이렇듯 노인들의 여가생활은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므로 여가문화생활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인들은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영화관람, 음악 연주회, 박물관 관람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향후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의 욕구조사에서는 여행이 31%로 가장 높았으며, TV 및 DVD시청이 16.9%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노인의 여가 및 교제 활동시간은 남성노인에 비해 59분이나 적은 6시간 1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아직도 여성노인들은 여가문화시간을 TV시청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여성노인들이 활발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조성을 즐길 수 있도록 여가문화 시설의 확충과 여성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개발 계획(UNDP)이 2007년~2011년 기준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한국은 6.9(최저1에서 최고 10)로 아이슬란드, 벨기에, 오만과 함께 20위에 올랐다고 한다(연합뉴스, 2013년 3월15일자).

삶의 질이란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 사회적, 경제적 등 많은 요소들이 있다. 조수범(2010)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개인의 안녕감(sens of Well-being), 생활상의 만족, 불만족감(Satisfaction or dissatisfaction with life) 및 행복감, 불행감(happiness or unhappiness)이라 하였다.

노인의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삶의 만족도라는 개념을 살펴 보면, Diener(1985)는 삶의 만족도를 인지적이고 판단적인 과정이며,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Neugarten, Havighurt, and Tobin은 삶의 만족도를 심리적 안녕이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개념이 일반화 된 것은 1961년 Neugarten 등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분리이론(disengagement)을 검증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노인의 생활만족도지표(Life Satisfaction Index)를 개발한 이후로부터 인 것으로 보이며, 1970년대 이후 노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만족도는 사기(morale), 행복감(happiness), 적응(adjustment), 등의 일련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최성재, 1986). 노인 삶의 만족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2. 노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이론

첫째, 쾌락주의 이론(Hedonism Theory): 경험적 요건(Experience requirement)의 특성을 보여 주는 이론으로 이는 삶을 영위해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과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판단은 삶을 기쁘게 또는 불행하게 하는 상태를 명시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개인의 심리상태를 확립적으로 규정하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욕구이론(Desire Theory): 개인의 욕구가 어느 정도로 충족이 되었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보는 이 이론은 쾌락이론의 특성이 되는 경험적 요건보다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상태와 선호들을 만족시켜주는 외부상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어느 특정시점에 선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입장이다. 또, 삶을 구성하는 외부영역들이 주관적 또는 감정적, 심리적인 행복감보다 각각의 개별 영역에 대하여 만족될 때 삶 전체에 대하여 만족을 얻는다고 보았다(신성일, 2012). 그러나 개인이 어떠한 것에도 선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이론의 삶의 질 결정요인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객관적 목록이론(Objective List Theory): 주관적인 측면보다 객관적인 측면을 강조한 이론으로 어떠한 것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가에 대하여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상들을 고려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가 있는 무엇가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종의 용어상 경직될 수 있다.

넷째, 일차적 재화이론(Primary Goods Theory): 삶의 만족도를 규정하는 것은 생활에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재화라는 입장이다. 여기서의 재화는 경제적 상품이 아닌 사회적 재화인 권리, 자유, 권력과 가치, 소득과 부, 등을 포괄적 개념으로 한다.

다섯째, 실체적 유익이론(substantive good theory): 실질적으로 삶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이론은 유익성의 판단이 욕구보다 우선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작용이 되는 대상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거쳐 삶의 만족도를 규정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삶의 만족도에 무엇이 실체적으로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1)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기남(2004)은 노년기에 능동적이고 다양한 주체로서 여성 노인의 삶을 강조하기도 하였고, 천희란 외(2010)의 연구에서도 건강은 노년기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힘이자 도구로 힘든 노동을 비롯한 어려운 삶의 경험이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삶의 질에 관련이 있으며(박미정, 2012), 신체적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높을지라도 신체적 측면에서 남성노인보다 열악하다(김미령, 2011)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 보다 질병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형수(2008)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을 객관적 지표로 하여 연령별로 비교 연구한 지표에 따르면 질병수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종합적 평가에서 남성의 건강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조수범(2010)에 의하면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들은 과거에는 사회구조적으로 경제력을 가질 수 없었으며,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출산과 과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건강문제를 더 많이 지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출산과 과중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건강문제를 더 많이 지니게 되었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관습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사회활동 참여의 경험부족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활용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용하(2009)의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수준은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높았고 자녀수가 적은 노인이 높았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배우자의 유무, 종교유무, 직업유무에 따른 삶의 만족은 근소한 차이만 보였다.

이흥직(2009)은 여성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숙영(2012)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남성노인이나 일

만 성인에 비해 낮아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2)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홍연방, 최혜경(2003)은 신체적 건강은 성공적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였다. 김미령(2006)은 노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은 객관적인 건강과 상관관계가 높을뿐더러 주로 자신의 나이 또래와 비교하는 상대적인 건강인지로 노인들 중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정현진(2012)은 여성노인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이 많이 걸리며 노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높고 건강 상실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현화 외(2010)에 의하면 노인 ADL¹⁾과 생활만족도 관계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노인의 일상생활체력 항목요인에 따라 생활만족도 요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상생활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민선 외(2007)에 의하면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동년배와의 비교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미(2012)는 건강상태가 좋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가진 노인에게서 우울이 낮고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3) 경제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김인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생활에 대한 만족상태는 생활수준이나 수입 및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경제문제의 해결은 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고 경제활동 욕구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산소득을 통해 생활비 마련한 경우가 경제활동을 통한 마련이나 자녀의 도움의 경우보다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오승환(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한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최윤진(2008)의 연구에서는 고용과 경제상태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수입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묘숙(2012)은 노인의 경제상태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의 경제상태는 자기 효능감을 통해서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 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1)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을 측정하는 도구

4) 사회 정서적 고독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박춘희(2002)에 의하면 노인의 개인적인 성격, 성향이 고독에 영향을 주게 되며,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하고 자식이나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밝은 면은 생각하려고 사람은 고독감이 적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순정(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 고독감 정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농촌 노인의 경우 고독감은 친구, 이웃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건강, 직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자녀와의 상호이해관계에 만족하고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일수록 덜 고독하다고 하였다(류지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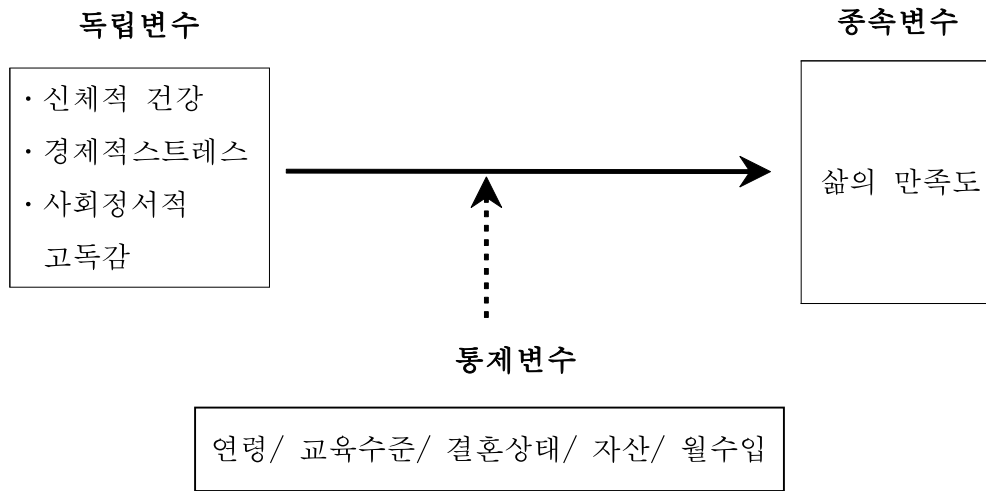
송대현 외(1989)에 의하면 노인의 고독감은 일상생활 및 노후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독감은 사회관계의 결핍에서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고독감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는 고독감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고독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며(곽윤길, 2010; 이상구 외, 2006) 이러한 노인의 고독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임인수, 2001). 박진경(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고독감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인들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산, 월수입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2) 가설설정

〈그림Ⅲ-1〉의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연구가설 1. 여성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자산, 월수입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2. 여성노인의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1)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척도는 최성재(1986)가 개발한 척도로 노인들의 과거,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정망과 긍정적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20개 문항의 4점 리커드 척도로 개발되어 과거차원의 6개 문항과 현재차원의 8개 문항, 미래차원의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를 노인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대면접촉 여부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리커드 척도로 정순돌, 이은주(2005)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응답형태는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드 척도로 되어있다. 긍정적 질문(①~⑩)에는 5,4,3,2,1점으로, 부정적 질문(⑪~⑳)은 1,2,3,4,5점으로 부여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삶의 만족 평가를 지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신뢰도 계수는 .88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신체적 건강

여성노인들의 신체적 건강을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김연수(2003)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건강과 스포츠 활동의 관계의 논문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관련된 척도를 기초로 하여 Beard와 Ragheb(1980)가 개발하고 이종길(1992)에 의해 번역 사용된 척도를 재구성하여 그 적합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설문지를 작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응답형태는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응답형태는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긍정적 질문(①, ③, ④, ⑤, ⑥, ⑦, ⑧, ⑪, ⑫, ⑭, ⑰, ⑱, ⑳)에는 5,4,3,2,1점으로, 부정적 질문(②, ⑨, ⑩, ⑬, ⑮, ⑯, ⑲)은 1,2,3,4,5점으로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71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는 Conger등(1992)이 개발하고 Simons 등(1994, 1996), 황덕순(1995), 노자경(1996), 박유신(1999), 이경옥(2000), 유을용(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토대로 이호중(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척도는 집세, 손자녀의 용돈, 공과금, 병원비 및 약값, 경조비 및 친목회비, 의복비, 교통비, 식료품비, 취미여가활동비, 본인 및 배우자 용돈 등 10가지 항목에 필요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가를 '매우 충분하다 (1점)', '충분하다(2점)', '보통이다(3점)', '부족하다(4점)', '매우 부족하다(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2으로 나타났다.

(3) 사회 정서적 고독감

본 척도는 척도는 김미령(2006)이 여성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적용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사회 정서적 고독감 척도는 15개의 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종종 그렇다(3점)', '보통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고독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 정서적 고독감 척도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869로 나타났다.

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본 조사 대상은 충북지역의 16개 노인복지관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2013년 10월 11일까지 진행 되었다. 조사대상자는 16개 노인복지관에 각 14부씩 총 22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에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224부 중 218부를 회수하였고 최종분석에는 응답의 성실성을 고려하여 197부가 사용되었다.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일반특성(5문항), 신체적 건강(20문항), 경제적 스트레스(10문항), 사회 정서적 고독감(15문항), 삶의 만족도(20문항) 등 총7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구성의 구체적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변인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산, 월 평균 수입	5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 인식 및 건강 활동제약여부 5점 리커드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경제적 스트레스	집세, 손자녀의 용돈, 공과금, 병원비 및 약값, 경조비 및 친목회비, 의복비, 교통비, 식료품비, 취미여가활동비, 본인 및 배우자 용돈을 5점 리커드 척도로 '매우 부족하다', '조금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10
사회 정서적 고독감	2주 동안의 느낌을 4점 리커드 척도로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보통 그렇다'	15
삶의 만족도	5점 리커드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8.0을 사용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여성노인들

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earson's 상관관계 계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셋째,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받은 척도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구성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서 활용된 척도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86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척도의 신뢰도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신체적 건강	20	.871
경제적 스트레스	10	.912
사회 정서적 고독감	15	.869
삶의 만족도	20	.884

IV. 조사결과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산, 월평균 수입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결과는 <표IV-1>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70세~79세가 51.3%로 가장 많았고 65세~69세가 24.9%, 60세~64세 13.2%, 80세 이상이 10.7%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중 70세~79세세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교육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초등학교 졸업이 39.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고등학교 중퇴/졸업 18.8%, 중학교 중퇴/졸업 16.2%, 글자해독

11.7%, 대학교 중퇴/졸업 6.1%, 글자 모름 5.6%, 대학원 졸업이상 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명) (N=208)	백분율(%)
연령	60세~64세	26	13.2
	65세~69세	49	24.9
	70세~79세	101	51.3
	80세 이상	21	10.7
교육수준	글자모름	11	5.6
	글자해독	23	11.7
	초등학교 졸업	78	39.6
	중학교중퇴/졸업	32	16.2
	고등학교 중퇴/졸업	37	18.8
	대학교 중퇴/졸업	12	6.1
	대학원 졸업 이상	4	2.0
결혼상태	배우자와 함께 생활	103	52.3
	사별하여 독신	89	45.2
	재혼	1	0.5
	이혼/별거	3	1.5
	미혼	1	0.5
자산	매우 충분하다	16	8.1
	약간 충분하다	19	9.6
	보통이다	76	38.6
	약간 부족하다	46	23.4
	매우 부족하다	40	20.3
월평균수입	50만원 미만	113	57.4
	100만원 미만	44	22.3
	150만원 미만	13	6.6
	200만원 미만	7	3.6
	250만원 미만	5	2.5
	300만원 미만	8	4.1
	400만원 미만	4	2.0
	400만원 이상	3	1.5

셋째,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생활이 52.3%로 가장 많았고, 사별하여 독신이 45.2%, 이혼 별거가 1.5%, 재혼 및 미혼이 각각 0.5% 순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노후생활을 위한 현재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38.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약간 부족하다 23.4%, 매우 부족하다 20.3% 순으로 조사되었다. 약간 충분하다는 9.6%와 매우 충분하다는 8.1%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수입의 분포를 살펴보면 50만원미만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미만이 22.3%, 150만원미만 6.6%, 300만원미만 4.1%, 200만원미만 3.6%, 250만원미만 2.5%, 400만원미만 2.0%, 400만원이상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이 79.7%가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저소득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조사대상자의 응답범주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 수준의 기술통계와 주요 변수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주요변수들 간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연령 평균값이 2.65로 60세~65세의 범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평균은 3.57로 초등학교 졸업,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노후 자산에서는 평균 3.38로 보통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월평균 수입의 평균은 1.99로 조사대상자의 평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신체적 건강 평균이 3.27(표준편차 0.58)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 평균이 3.16(표준편차 0.74)로 나타났고 사회 정서적 고독감 평균은 1.92(표준편차 0.61), 삶의 만족도는 평균 3.29(표준편차 0.55)로 나타났다.

<표 4>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N=208)
독립변수	신체적 건강	3.27	.58	1.5	4.75	197
	경제적 스트레스	3.16	.74	1.00	4.70	197
	사회 정서적 고독감	1.92	.62	1.00	3.93	197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3.29	.55	1.55	4.70	197
통제변수	연령	2.59	.85	1	4	197
	교육수준	3.57	1.34	1	7	197
	결혼상태	1.53	.64	1	5	197
	자산	3.38	1.15	1	5	197
	월평균 수입	1.99	1.65	1	8	197

- 주: 1) 신체적 건강: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2) 경제적 스트레스: 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척도
 3) 사회 정서적 고독감: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 그렇다 4점 척도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의 확인과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표 5>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변수로는 신체적 건강과 삶의 만족도($r=.577, p<0.1$), 경제적 스트레스($r=-.523, p<0.1$), 자산과 경제적 스트레스($r=.506, p<0.1$)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분석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80 기준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모두가 $p<0.1$ 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1								
2	-.371***	1							
3	.278***	-.263***	1						
4	.309***	-.223***	.315***	1					
5	-.412***	.484***	-.367***	-.387***	1				
6	-.181*	.327***	-.190**	-.213**	.254***	1			
7	.249***	-.358***	.299**	.506***	-.466***	-.363***	1		
8	.118	-.317***	.258***	.248***	-.273***	-.246***	.403***	1	
9	-.251***	.333***	-.275***	-.437***	.342***	.577***	-.523***	-.479**	1

1. 연령, 2. 교육수준, 3. 결혼상태, 4. 자산, 5. 월평균 수입, 6. 신체적 건강, 7. 경제적 스트레스, 8. 사회 정서적 고독감, 9. 삶의 만족도

주: 1) * $p<.05$, ** $p<.01$, *** $p<.001$
 2) dummy Variable화 하여 사용함
 a: 결혼상태: 0(배우자와 함께 생활, 재혼), 1(사별하여 독신, 이혼/별거, 미혼)

3.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인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자산, 월평균 수입과 독립변인인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을 종속변인인 노인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변인들의 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R^2 = .539$, 수정된 $R^2 = .519$ 로 나타났으며, $F = 24.484, p = .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p<0.5$)하게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자산($\beta = .188, p<.002$)이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 결혼상태는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인인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신체적 건강은 $\beta = .409$, $p < .000$ 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 경제적 스트레스는 $\beta = -.165$, $p < .012$ 로 여성노인들의 경제적 스트레스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은 $\beta = -.262$, $p < .000$ 로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여성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후 자산이 충분하다고 느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경제적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노인들의 연령과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 결혼상태는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삶의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구 분	B	β	t	p
연령	-.037	-.056	-.985	.326
교육수준	-.005	-.012	-.195	.846
결혼상태	-.009	-.008	-.151	.959
자산	-.091	-.188	-3.156	.002
월평균급여	.001	-.003	-.052	.959
신체적건강	.389	.409	7.401	.000
경제적 스트레스	-.122	-.165	-2.523	.012
사회 정서적 고독감	-.236	-.262	-4.666	.000
R ²	.539			
Adj R ²	.519			
F	24.484			
p	.000			

주: 1) dummy Variable화 하여 사용함

a: 결혼상태: 0(배우자와 함께 생활, 재혼), 1(사별하여 독신, 이혼/별거, 미혼)

※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V. 요약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여성노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를 규명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적 제언과 정책적 제언을 하여 실천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조사 대상자는 충북지역의 16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여성노인 224명을 대상으로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요약

첫째,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70세~79세가 51.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9.6%,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이 52.3%,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은 보통이다가 38.6%, 월평균 수입은 50만원 미만이 57.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인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이 충분할수록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 수입, 결혼상태는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물학적 관점인 신체적 건강을 사회 심리적인 관점인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가정하고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 모두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제언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내용을 정리하면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스트레스, 사회 정서적 고독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신체적 건강은 신체적 자립 및 일상생활유지로 인한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성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와 노인 여가복지 시설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획기적인 의료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 수도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도 월 2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여성노인들은 부모님을 부양한 세대이지만 현대화로 인하여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의 구조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부양받던 노인에서 노인 스스로가 부양을 책임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의 고립과 갈등, 부모·자식간의 지리적 이동은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아가 할 것이다. 여성노인들의 사회참여는 여성노인들의 자아실현은 물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방법론상 충청지역의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노인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여성노인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강용규 외(2009), 노인복지론, 창지사.
- 곽윤길(2010),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댄스스포츠 참여 사례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34(3):27-42.
- 권중돈(2004), 노인복지론, 학지사.
- 김기찬·이상엽. (2009). 교육서비스 품질과 조직몰입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397-426.
- 김동백. (2010). 도·농간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인식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4(1): 183-196.
- 김동엽(2013), 스마트 에이징, 청림출판.
- 김동진·이상엽. (2009). 서비스품질 지각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63-88.
- 김미(2012),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우울 및 삶의 질』,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 노인 삶의 질 및 영향 요인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2.
- _____(2011), “중고령자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성별에 따른 비교”, 『국민연금공단』.
- 김숙영, 손신영(2012), “농촌 여성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노인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 김순정(2002), 『노인이 지각한 가족적지지 고독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선문대학교

-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 김인수 외(2012),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 김연수(200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건강과 스포츠 활동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김종범(2007), “노인의 여가활동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7, No. 1.
- 김진식·최영자·이상엽. (2012). 노인취업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선진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2): 287-318.
- 김현선(2007), 『노인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복지관이용 대상자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 김효정(2004), 『노인의 여가활동과 고독감 관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인복지학과.
- 림근란 외(2011),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Vol 31, No 1.
- 류용무, 『노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용인시 사례로’,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2009.
- 류지은(2001), 『한국 농촌노인 도시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 박광희 외(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연구』, 11(1), 43-61.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차이”, 『한국노년학』, 24(3), 13-29.
- 박미경 외(2010), 황성철,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과 부정적 기능에 따른 저소득층 여성한부모의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박봉길 외(2004), 사회복지사를 위한 통계, 양서원.
- 박미정(2010),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1), 62-91.
- _____ (2010), “독거 여성노인이 인지하는 배움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통권 49호.
- _____ (2012), 『외국머느리를 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기독교 사회학 전공 박사논문.
- 박상규(2006), “노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785-796.
- 박순미(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통권5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박선희(1997), 『노인의 생활 조건에 따른 고독감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박용순 외(2012), ‘만성질환 남성노인의 우울감 삶의 만족도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 사회복지교육』, Vol. 17.

- 박진경(1997), “노인의 몰입형 여가경험이 고독감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 사회학회지』.
- 박차상 외(2002), 한국의 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춘희(2002), 『노인 고독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 백종오 외(2010),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임상사회사업 연구』.
- 백지은(2010),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경험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 15, No. 3.
- 손준호 외(2010), “장기간 복합운동 참여에 따른 여성노인의 인지기능과 우울”, 『한국스포츠 심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 송대현(1993), “노년기 고독감: 자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독감 척도 배경 변인”, 『한국심리학회지』.
- 송대현 외(1989), “노년기의 고독감: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 9.
- 서정인(2009),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가족 친구관계 및 우울』, 충북대대학원 아동복지학, 문학 석사학위.
- 신민선 외(2007), “노인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 인권사회복지연구』, 창간호.
- 신성일(2012), 『노인의 삶이 질에 관련된 변인들의 메타회귀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아동복지전공, 문학박사학위 논문.
- 오승환(2007), “노인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 오영희 외(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9.
- 이경희·방은령. (2008). 청소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377-400.
- 이경희·이용환. (2009).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준비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3(2): 427-444.
- 이묘숙(2012),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한 노인의 경제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57.
- 이상구 외(2006), “노인종합복지관 여가프로그램 참가유형에 따른 이용만족도, 고독감 및 성공적 노후의 관계”, 『한국스포츠학회지』, 제19권, 제1호.
- 이상엽. (2011). 은퇴예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심리적 안녕감과 은퇴설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5(3): 145-176.
- 이상준·이상엽. (2011). 수협이 공공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95-112.
- 이성은(2012),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가 관계에서 경제활동 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 40.
- 이순동·김찬영·소광섭. (2013).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노화태도와 은퇴태도가 심리적

-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17(1): 221-240.
- 이윤복(2011), 『노인의 종교성과 삶의 질에 따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 이승신(2012), “고령자의 후 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 15권 4호.
- 이은희. (2008).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1): 161-178.
- 이은희. (2010). 노인대상 자원봉사자의 활동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한국비교정부학보』, 14(2): 263-280.
- 이은희. (2011). 재가노인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369-392.
- 이인수 외(2004), 21세기노인복지론, 대왕사,
- 이주호·양기근·류상일·이상엽. (2013).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조직의 구조적·행태적 변화가 조직몰입 및 조직역량에 미친 영향: 보령화력발전소의 화재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9(6): 1-20.
- 이찬영·태원유·김정근·손민중(2011),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파장”, 『삼성경제연구소』11월, i. 6.
- 이춘희·옥선화(1994), “남자노인 역할활동과 생활만족도”, 『한국가족학회 가족학 논집』, 제6집.
- 이한숙·윤영선(2009), “사회체육활동 참여 노인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5호.
- 이흥직(2009),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관한 탐색: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자본 특성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연구”, 17, 2.
- 이해영(2006), 노인복지론, 창지사.
- 이호중(2008), 『노년기경제활동실태 참여욕구 및 경제적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 연합뉴스(2012. 3. 15), 한국'삶의 질' 12위유지, 성평등 지수는 27위'. rha@yna.co.kr
- 임인수(2001), “노인스포츠 참여가 자아존중감 고독감 및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2).
- 조길상(2007),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도』 ‘도서지역·도시지역 여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노인복지학, 석사학위.
- 조용하(2009), “여성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삶의 만족수준에 관한 인과적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2, No.1.
- 조선희(2010), 『남성노인 노후준비도가 노후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기독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 조수범(2010),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박사학위.

- 주경희(2011),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 ‘성별과 연령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 전계영(2006), 『빈곤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연구』 ‘부부관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 정순돌 외(2005),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면접촉과 비대면 접촉”, 한국노년학, 25(4).
- 정중현(2012), 『노인 성격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벤처학과, 박사학위.
- 정인희(2012), 『독거노인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 정현진(2012), 『여성노인의 연령 그룹별 삶의 만족도 차이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 조은희. (2012). 여성의 행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여성정책 비교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6(3): 417-440.
- 통계청 사회통계국.(2011. 9. 29일자),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
 _____.(2012), 2012년 고령자 통계.
- 채수원 외(1992),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일반가정노인과 양로원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학회지』, 22(4).
- 천희란 외(2010), “여성노인의 건강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학논집』, 제27집, 2호.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논총, 49.
- 최송식 외(2009), “노인의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Vol. 29, No. 4.
- 최아름(2011),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경제적 · 사회적 · 신체적 · 심리요인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 최윤진(2008), 『연령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 최현화 외(2010), “노인일상생활 체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과학』, 제3권, 제1호.
- 한국노인상담연구소(2009), 노인심리 척도집, 학지사.
- 한국노년학포럼(2010), 노년학 척도집, 나눔의 집.
- 한국사회복지학(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 한상미(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 42(3).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004), 노인복지론, 양서원.
- 한진숙 외(2010), “여성노인의 우리춤 체조 경험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현상학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 50호, 한국노인복지학회.
- 한형수(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

- 구』, 39.
- 함정현·이상엽. (2010).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4(2): 305-330.
- 황창주·이상엽. (2009). 친환경농산물 구매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127-150.
- 허선영(200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허준수(2011), “노인들 고독감에 대한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비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통권 53호, 한국노인복지학회. 현재은 외 (2012),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 연구”, 『한국 정책학회보』
- 홍경주(201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경영행정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 Atcheley, R. C.(1980), *Social Forces in life(2nd ed)*.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_____.(1994), *Social Forces and aging*, California: Wardsworth Publishing co.
- _____.(2000),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9th ed)*. Belmont, CA: Wordsworth.
- Beaver, M. L. & Miller, D.(1985),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with Elderl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terventions*. Homewood, IL: Dorsey Press
- Bee, H. L.(2000), *The Journey of adulthood(4th ed)*. Englewood Cloffs, NJ: Prentice-Hall.
- Breeze, E., Jones, D. A., Wilknsn, P., & Fletcher, A. E.(2004), Association for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 Britain socioeconomic position; baseline data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8(8).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influences on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 Diener, E., Emmon, R. A., Larso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 Jorm, A. F., Christensen, H., Henderson, A. S., Jacomb, P. A., Korten, A. E., & Marckinnon, A.(1998), Factors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Australisian Journal on Ageing*, 17.
- Mroczer, D. K., & Spiro, A.(2005),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 from the 88(10).
- Neugarten, B. Havighurst, R, and Tobin,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2(3)
- Robbins, G., Power, D., & Burgless, S.(1997), *A Wellness Way of Life*. Chicago: Brown and Benchmark.
- Simons, R. L., & Chao, W.(1996), Conduct Problems. In Simons & Associates, *Understanding Difference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AGE.
- Simons, R. L., Lorenz, F. O., & Conger, R. D.(1993), Marital and spouse support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impact of economic strain upon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 Slamon, M., & Conte, V. (1984), *Manual for the Salamon-Cont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Scale*, Woodmere, NY: Psychologica Assesment Resources, Inc.
- Vaillant G. E., & Mukamal, K.(2001), Succe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 Woodruff, D. S., & Birren, J. E. (Ed.) (1983), *Scientific Perpertives and Social Issues*. (2nd ed). Monterey, California: Brook/Cole.

접수일(2013년 11월 02일)

수정일자(2013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2013년 12월 03일)